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 공관복음서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12월 12일 강의 계획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성금요일 오전과 낮)

1. 십자가상의 칠언(架上七言)

(2)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말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거니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④ 우리가 선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⑤ 은총이란 무엇인가?

⑥ 구원이란 무엇인가?

(3)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때 할 것임]

(4) “목마르다” [요한복음 강의 때 할 것임]

(5) “엘리 엘리 레마 사막타니”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막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마태 27,45-46)

① 정오에 시작되어 세 시까지 계속된 어둠

②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나온 울부짖음

③ 성부 하느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④ 하느님과 예수님의 상처 앞에서 우리가 울다

(6) “다 이뤄졌다” [요한복음 강의 때 할 것임]

(7)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5)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심(성금요일 오후)

1. 예수님의 운명하심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마르 15,37-38).

- (1) 질식사로 돌아가셨는가? 심부전으로 돌아가셨는가?
- (2)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
- (3) 하느님은 왜 지성소의 휘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찢어놓으셨을까?

2. 무덤에 묻히심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고, 그 날은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왔는데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그 역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니 빌라도는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는지 놀랍게 여기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분이 어느새 돌아가셨는지 물었다. 이렇게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삼베를 사 가지고 가서 그분 시신을 내려다가 삼베로 싼 다음, 바위에 뚫린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놓았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분이 어디에 안장되는지 바라보고 있었다.(마르 15,43-47)

(1)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경제적으로 부자였고(마태 27,57),

정치적으로 산헤드린 의원, “명망 있는” 의원(마르 14,43)

(2) 유대인들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더벽을 파서 만든 터널(burial niches)에 모시지 않고 중앙 공간(burial chamber)에 놓여졌다

(3) 만약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4)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내시면서 숨지셨다....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계셨을 때에 그분을 따르면서 시중을 들었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마르 15,37.40-41).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그분이 어디에 안장되는지 바라보고 있었다.(마르 15,42-47)

예수님 수난사건에 대한 정리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수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로마 5,8)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1요한 3,16)

2. 교회는 예수님의 수난을 파시오(*passio*)라 부른다

3.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서, 또는 그분의 사랑에서

(1) 오강남 교수의 주장 → 아벨라르의 주장

(2) 안셀무스 성인의 주장

예수님의 부활

1. 부활신앙

(1)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점을 믿는 것

(2) 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순례여정을 이끌어주시심을 굳게 믿고,

②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코린토1서 15장의 내용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1-11절)

- 부활 신앙의 첫 번째 핵심 요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얘기하고(12-14절),

- 부활 신앙의 세 번째 핵심 요소

부활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35-57절)

- 부활 신앙의 첫 번째 핵심 요소

결론(58절)

- 부활 신앙의 두 번째 핵심 요소

(3)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몸을 벗어나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게 되고, 아빠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것임을 믿는 것

2. 부활사건의 역사성 질문과 반박

(1) 부활발현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이들

- 에른스트 르낭(Ernest Renan)의 견해
- 게르드 뤼데만(Gerd Lüdemann)의 견해

(2) 사도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예수님을 기념하는 무덤이 없다.

3. 성경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 -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발현 하심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걸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돌아갔다. 벌벌 떨며 났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마르 16,1-8 직역)

(1) 마르코복음의 <짧은 결말>과 <긴 결말>

<짧은 결말>: 마르 16,1-8

<긴 결말>: 마르 16,9-20

(2) 마르 16,8을 통해 마르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금 학기 내내 수고가 컷습니다.

이번 학기 졸업하시는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는 복된 순례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2024년 봄) 다시 만나게 될 분들에게도 축원하옵니다.

겨울 방학 내내 사랑, 기쁨, 평화가 가득 찬 삶을 가지시다 다시 만나기를!